‘중위험 중수익’ ELS, “中리스크엔 무방비”

올해 판매된 ELS 80%가 H지수
‘널뛰기 장세’ 지속 가능성 고려
원금손실 리스크·수익률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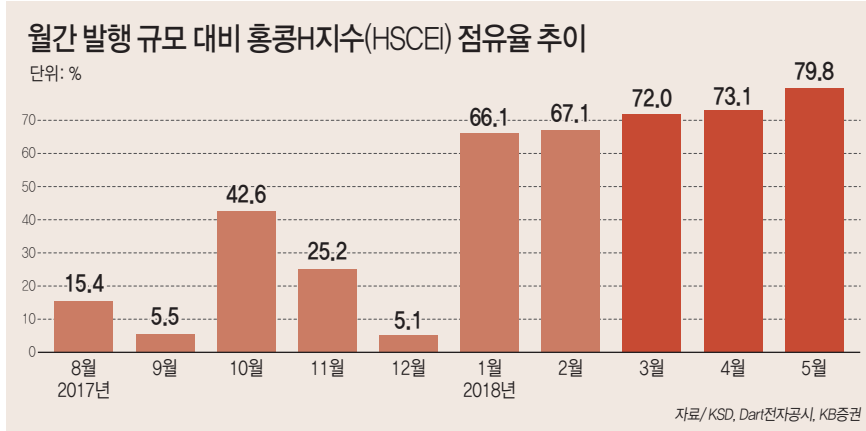
중국 증시가 고개를 들면서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국내 금융투자 상품도 중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주자로 뭉칫돈을 빨아들인 ELS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판매된 ELS의 80% 가량이 중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아르헨티나 위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신흥국 증시의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아 중국 관련 투자 상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LS쏠림 우려, H지수 ELS 79.8%

1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 ELS·ELB 발행액은 7조7681억원에 달한다. 전달 대비 1조 1581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 지수형이 90.8%에 달했다. 국내 지수형(6.2%), 종목형 (2%), 혼합형(0.8%), 해외 종목형 (0.2%)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수형의 발행 비중이 3개월 연속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기초자산 10개 가운데 8개(79.8%)의 ELS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H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우량 국유기업 30여개로 구성된 지수다. H지수 ELS비중은 1월 66.1%에서 2월 67.1%, 3월 72.0%, 4월 73.1% 등 증가세다.



금융위원회가 기초자산 쏠림을 막으려고 도입한 총량규제가 지난해 말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장 홍콩H지수 ELS 쏠림현상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와 같은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만2000선에 올라선 H지수가 방향을 틀 경우 2015년의 공포가 재현 될 수 있어서다. ELS의 대부분은 만기 때까지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녹인 구간인 최초 기준가의 40~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으며, 동시에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일정 수준 이하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2015년 2월 1만1000선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홍콩H지수는 그해 5월 26일 1만4801.94로 장을 마쳐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홍콩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로 조정이 이어져 2016년 2월12일 7505.37(종가)로 최저점을 찍은 뒤 가까스로 반등했다.

이 시기에 발행된 ELS 중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했던 ELS는 홍콩H지수가 1만3700선 위에 형성돼 있던 2015년 4월9일~6월9일 두 달간 판매된 녹인 배리어 55% 짜리 상품들이다. 증권업계에선 H지수 폭락으로 2015년 4~5월 발행된 10조4321억원 규모의 ELS 중 절반인 5조원 가량이 이때 녹인 배리어(손실구간)를 터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 쏠림땐 위험도 커진다

시장에서는 해외 지수형에 대한 쏠림이나 발행 증가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KB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무엇보다 계속되는 해외 지수형만의 발행이 전반적으로 ‘ELS·ELB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과거 HSCEI지수 KI (knock-In)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 지수형 비중 90.8%는 주의의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국민 재테크’상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커(투자 상담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에게 ELS 비중을 줄일 것을 권하고 있다. 감내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향유할 이익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3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ELS의 연평균 수익률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연 7~8%를 냈지만 최근엔 3~4% 수준으로 저위험 상품인 채권형 펀드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중은행 B 지점장은 “ELS 시장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박해지는 추세”라며 “굴리는 자금이 큰 자산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와 대체투자 펀드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큰 손들이 찾는 사모 및 원금비보장 비중이 늘고 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은 1조1500억원이 증가할 정도로 비중 증가보단 실제 숫자 증가가 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신규·휴면고객 특판 진행

KB증권은 14일부터 신규 및 휴면 고객(1년 이상, 잔고 10만원 미만) 대상 ‘특판 RP’ 2차 판매를 진행한다.

KB증권은 총 5000억원 한도 ‘특판 RP’를 순차적으로 판매 중이며, 지난 5월 24일 1차 판매된 1000억원 한도 ‘특판 RP’는 판매 25분만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특판 RP’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세전 91일물)간, 개인 연 3.0%, 법인 연 2.3%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며 3개월 이후에는 해당시점 수시 RP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판매분은 총 1500억원 한도로 개인 800억원, 법인 700억원을 각각 선착순 판매하며, 개인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법인 100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자산관리’ 앱 리뉴얼 출시

키움증권은 11일 ‘키움증권 자산관리’ 앱을 리뉴얼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자산관리 앱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 컨텐츠를 제공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키움증권은 자산관리 앱을 새롭게 개편하여 모바일 금융상품 판매 및 자산관리 강화에 나선다.

키움증권 자산관리 앱은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UX·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매 프로세스도 간소화됐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총 50억 규모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11일부터 15일까지 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14호는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6.50%(연 5.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이다. /김문호 기자

BNK자산운용, 남북경협 수혜주 투자 ‘통일펀드’ 출시

브레이브뉴코리아 증권투자신탁 1호
경협·통합 등 4개 테마 포트폴리오

BNK자산운용은 통일펀드 ‘BNK 브레이브뉴코리아(BraveNewKorea)증권투자신탁1호(주식)’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출시된 이 펀드는 남북 경제협력, 남북 경제통합, 북한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국내 기업, 통일 시 투자가 확대될 기업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먼저 남북 경협 테마에는 기초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건설·철도·전력·가스 등의 종목과 개성공단 재개로 수혜가 예상되는 의류 관련주 등이 들어간다.

경제통합 테마는 대북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금융주와 의료 기반이 취약한 북한 상황을 반영한 제약업종에 주목한다.

또 앞으로 북한 내수시장이 커지면 유통과 소비업종이, 통일을 가정하면 관광·바이오·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

펀드는 이 4개 테마에 동시에 접근해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는 “기존 ‘1세대 통일펀드’는 대부분 인프라와 철도 등의 종목에 한정돼있지만 이제 그런 단기적인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워라밸 확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특화’ 붐

건설사, 커뮤니티 시설 강화 집중
스포츠·스파 등 여가 시설 확대

롯데·신동아건설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 투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주거환경에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건설사들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최근 아파트에는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스포츠 특화 시설부터 호텔 수준의 스파 서비스, 주부와 아이들을 위한 카페까지 점점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소통을 돕고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커뮤니티 시설은 진화를 거듭하고 건설사 역시 커뮤니티 시설을 차별화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만900여㎡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는 기초체력검사실, 인도어 조깅트랙 등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체육 관련 시설과 함께 사우나 등을 적용, 인기를 끌었다.

같은 달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과천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위버필드’는 자연형 휴게공간과 함께 GX룸, 스크린골프장,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각광을 받았다.

이달 분양하는 단지로 커뮤니티 시설이 주목되는 단지로 롯데·신동아건설은 김포 신곡지구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 74~125㎡ 2255가구를 분양한다. 단지에는 인도어 골프연습장, 러닝트랙 등 전문화된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이는 입주자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을 돕는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안양씨엘포레자이’39~100㎡ 1394가구 중 7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단지 내 설치된 ‘자이안센터’ 통해 호텔식 사우나와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용현·학익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학익’73~84㎡ 616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남녀독서실, 클럽하우스, 회의실 등으로 특화 공간을 마련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삼정KPMG

감사委 발전방향 세미나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삼정KPMG는 12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고 있다. 11월 시행을 앞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 만에 전부개정 된 것으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도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이 이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 되고 있다. /김문호 기자